

시온 주보

제2503호
2024년 5월 19일(나해)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엘 그레코 (El Greco, 1541-1614)
1600년경, 캔버스에 유채,
275x127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입당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7과 24과 29과 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과 7.12-13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공동선을 위하여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유대교의 축제인 오순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사도 1,14)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파스카 후 오십 일이 되는 날에 시작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대교의 다양한 축제가운데 오순절은 특별히 밀의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레위 23,15-21 참조)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 있던 이들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는 이미 성령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이래로, 숨, 바람, 영은 모두 같은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12,4-6)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곧, 한 분에게서 오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결국 한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과 성격과 환경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활동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공동선은 공동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공동체로, 공동선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도 함께 생각합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을 애써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하여 공동선을 위하여 주어지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엘 그레코의 ‘신비주의적’인 이 성화는 좁고 어두운 공간을 배경으로, 위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빛을 내뿜고, 불꽃 모양의 빛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정’과 ‘고통’의 붉은 색과 ‘천상’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으신 성모님께서서는 중앙에서 두 손 모아 우리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신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청하십니다.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두부 한 모, 웃음 한 입



박지현 요셉피나 | 방송작가 겸 수필가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그런데 침을 맞고 오시겠다며 휴대폰을 두고 나가신 겁니다. 아빠를 찾아서 동네 골목을 돌았습시다. 저만치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다가옵니다. 아빠였습시다. 입가에 몽실한 미소 한 자락 엮으시고 기분 좋은 표정이십니다. 큰딸이 온 게 반갑고 기쁘신 거지요. 자전거 바구니엔 까만 비닐봉지가 있었고, 아빠는 자랑하듯이 뭔가를 꺼내 보이십니다. 커다란 두부 한 모와 흙 묻은 당근입니다. 따끈한 두부에 김장 김치를 싸서 당근 주스랑 먹고 싶었던 겁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지만, 영화 어디에선가 봤음직한 장면 같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내려는 걸 참고 영화를 봤습니다.

아빠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빠는 세 살 때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 때문인지 어른이 되어서도 술만 드시면 우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불쌍해 보일 정도였지요. 저는 태어나서 술을 드시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시며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아빠는 엄마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술 드시는 아빠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만 딸인 저와 엄마는 아빠의 인생이 하느님의 영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변하지 않았고, 저희는 좌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내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어요. 아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를 껴안아 보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빨리 변하기를 바랐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아빠의 인생이 다 잘못된 것처럼 여기며 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제가

구원되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알코홀릭 아빠가 없었더라면, 저는 죽도록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며,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빠는 제게 구원의 도구인 동시에, 제 자신과 화해하게 해주신 정화(淨化)의 선물입니다.

아빠는 4년 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으신 데다, 작년엔 췌장암 2기로 생사를 넘나드는 개복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술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함께 바친 저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일까요? 제 평생 술을 드시지 않는 아빠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의 행복이 낯설기만 합니다. 큰딸이 온다고 갖 만든 두부를 사서 자전거에 싣고 오시며 배시시 웃던 모습, 그 따뜻한 사랑이 제겐 응답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한 컷의 스틸 사진처럼 마음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술 안 드시는 아빠와 살아볼 기회를 주시고, 부녀간에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빠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빠, 살아계셔서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대단하신 우리 아빠.”

한
낱
교
리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성모님을 향한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 6,37)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예수님의 명에 따라 들쭉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씩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느라 조금은 지쳐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에 가서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동안 쉬 없이 복음을 선포하던 제자들은 ‘드디어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쉴 수 없는 현실에 허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애타게 달려온 군중을 보니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후, 어디에 가서 풀을 뜯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데에게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 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주십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은 다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

들은 어안이 병병합니다. ‘아니, 이들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많은 빵을 지금 어디서 구하란 말이지?’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선교 여행으로 지쳐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시키니 불평과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말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답답하지만 스승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일단은 사람들을 무리 지어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찬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는데, 광주리에 빵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 만 오천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다니. 제자들은 그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외치던 당신 백성에게 만사를 보내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제야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배고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놀라운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업신여기며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죄악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 한 번쯤 질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성선설은 중국의 유교 사상이 맹자가 주장한 학설로, 인간은 선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상태를 예로 듭니다. 즉, 어린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 사심 없이 아이를 구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법과 질서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이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게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성인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원이 있다면 선의 기원에는 선한 원리가 있어야 하고 악의 기원에는 악한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느님께서선하신 분이니 악을 만드셨을 리가 없지요.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실체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므로 그것은 선한 것이어야만 한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한편 악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러한 성인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즉,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인간은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가 생겨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생명과 행복의 길 대신 죽음과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도덕률(십계명)의 의무와 양심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죄의 근원을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로 분류합니다. 바로 이 칠죄종에서 구체적인 죄와 악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하느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근원, 인색은 재물에 대한 애착,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감정, 분노는 타인을 증오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색욕은 성적 쾌락의 무질서, 탐식은 음식과 재물을 무절제하게 탐하는 것, 나태는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을 불행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길 위에 있습니까? 지금 걷는 그 길은 불행의 길입니까, 행복의 길입니까? 만약 죄 중에 있다면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 결핍되어 있는 선을 다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고해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YOUTH'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청소년 사목에 함께하는 동반자(사제, 수도자, 교사, 자모회 등)의 인터뷰를 담아 신앙생활과 주일학교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월 셋째 주 서울주보 청소년 특집입니다.

편집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종교등부
사목부서 미디어부



다섯 번째 인터뷰!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 최우수(MVP) 연수생과 연수 동반자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는 본당 청소년 동반자들이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활동 가운데에서도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연수입니다.



연수생
김강남 힐라리오
(이하 김 힐라리오)



동반자
서예림 스텔라
(이하 서 스텔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힐라리오 안녕하세요. 6지구 창5동성당 종교등부 주일학교 교사 김강남 힐라리오입니다.

서 스텔라 저는 5지구 공릉동성당 종교등부 주일학교 교사 서예림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선생님, 처음으로 연수 동반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 스텔라 작년에 제 신앙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진지하게 주일학교 교사 퇴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에 연수생으로 참여했는데, 연수를 통해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용기를 다른 선생님들께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신청하였습니다.

힐라리오 선생님,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느꼈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김 힐라리오 이번 심화 연수 주제 성구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였습니다. 주제 성구처럼 하느님께서 연수 내내 늘 저희와 함께 계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안고 연수에 참여하였는데, 하느님께서 연수에 함께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응답해 주셨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심화 연수를 통해 받은 은총은 어떤 것인가?

서 스텔라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본당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어요.

김 힐라리오 이때까지 제가 걸어온 청소년 동반자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었던 것부터 시작하여, 연수를 통해 받은 위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느꼈던 고마움 모두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 이후, 청소년 동반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김 힐라리오 저는 처음에 청소년 동반자는 주님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수를 다녀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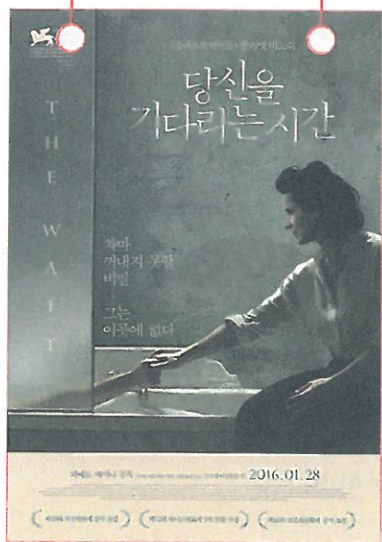
나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 스텔라 청소년 동반자는 청소년들을 이끄는 사람이 아닌,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리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며 발걸음을 맞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동반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청소년 동반자 심화 연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김 힐라리오 '다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또 한 번 느끼고,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서 스텔라 신부님, 수녀님, 간사님, 동반자 선생님들, 연수생 선생님들 정말 모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 주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2015년 작, 감독 '피에로 메시나'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성모님의 삶을 헤아려봅니다.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부터 겪은 어려움을 함께 버티고 이겨낸 남편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전에 겪은 어려움들 이상의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했던 예고와 달리 공생활 전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에 예고의 신빙성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았다고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삶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는 증언으로 대변되며, 이는 성모님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의 모습 앞에 논리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피에로 메시나 감독의 영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인 ‘참척(慘戚)’을 진중하게 담은 작품으로, 성모님의 심경을 함께 읽어내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심경 안에 담긴 기다림의 정서를 관객과 공유합니다. 영화는 아들 주세페(지오바니 안젤로 분)를 잃은 어머니 안나(첼리에트 비노슈라쥬 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립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름에 빠져있던 안나에게, 어느 날 주세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주세페의 여자 친구 잔(루드라주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옵니다. 주세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안나는 주세페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잔을 시칠리아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고통스러운 비밀을 품은 안나와, 애인의 무소식에 상심해하는 잔은 주세페가 돌아오기로 약속했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영화는 여러 장면에서 안나를 성모님의 모습에 빗댁니다. 영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성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후 영화속 안나의 모습은 성모님이 어머니로서 겪었을 인간적인 슬픔을 가늠하도록 이끕니다. 일꾼이 집에 못을 박는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창문들을 암막으로 가려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저택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펼쳐진 암흑의 상황과 맞닿아있어 보입니다.

시메온의 예언(루카 2,35 참조)에서 드러나듯 성모님이 감내한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고통은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 깊이 새기는 성모님의 태도에 힘입어 고귀한 기다림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모 성월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사태를 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는 태도를 일깨우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속 안나가 잔에게 주세페의 죽음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5월 19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23) 발행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교구에서 집계한 신자 수는 5,970,675명으로 인구 대비 11.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본당 수는 1,789개이며 성직자 수는 총 5,7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473 명으로 남자 수도자 1,568명, 여자 수도자 9,90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https://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에 정용진 신부 임명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청 복음화부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이며 청주교구 소속 사제인 정용진 요셉 신부를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에 임명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는 비그리스도교 지역의 선교를 위해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전 세계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가난한 교회의 복음화를 위한 원조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교황청 전교회, 교황청 베드로사도회,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교황청 전교연맹 등 4개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 1979년 5월 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2020년 5월 24일 최선웅 야고보 신부(77세)

교구청 알림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생명 / 회비 없음(6월4일 접수 마감)
 때, 곳: 6월11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신청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6월5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용문청소년수련장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산하 용문수련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찰, 판단, 실천을 내용으로 여름캠프를 진행합니다 / 캠프 전반의 진행 보조 및 세팅, 물놀이 안전관리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와주실 가톨릭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때: 1차 7월31일~8월3일, 2차 8월4일~7일, 3차 8월8일~11일 / 3박 4일간 숙식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시 용문역 ↔ 수련장 픽업
 문의: 010-3969-6422(6월17일까지 지원마감)

2024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루카복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
 때: 6월26일(수)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4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6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시복시성기원미사(198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김조이 수산나'
 때, 곳: 매일 셋째주(화) 5월21일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 신구약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환경사목위원회

- 1) 2024년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주제: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때: 6월4일(화) 10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2) 본당 사목위원 생태교육
 때, 곳: 6월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본당 사목위원, 관심 있는 일반 신자 / 주제: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강사: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승현 신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신청: 5월27일(월)까지 각 본당 사무실로 교육 신청
 문의: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전래미술연구소 5주년 조각초전: 전관
 전시일정: 5월22일(수)~30일(목)

141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원산 본당 / 문의: 02)727-2420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대상: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때, 곳: 7월13일~8월17일 중 매주(토), 최양업홀(중림동)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등록: 6월10일(월)~28일(금)까지 /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영적글쓰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 피정

때: 5월21일(화) 13시~16시 / 문의: 010-3341-1354

곳: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 강사: 김현우 신부

ICPE 무신론 문화와 인격적 신앙 피정

내용: 강의, 나눔(선착순 15명) / 문의: 010-5646-6594

때, 곳: 5월26일(일) 10시~17시, ICPE 선교회센터(합정동)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21일	김중국 신부	5월28일	이상기
-------	--------	-------	-----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5월24일~26일, 6월21일~23일
세월의 지혜영성 피정	7월15일~19일 / 65세 이상
영신수련 8일 피정	8월1일~10일

제주 면영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순례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여름 특별 피정 7월25일~28일, 8월2일~5일, (우도 자유 일정 포함) 8월8일~10일, 8월14일~17일

성지순례 6월15일~18일, 9월7일~10일, 10월7일~10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6월7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6월21일(금)~23일(일),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명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19일~20일 / 소록도 피정 5월31일~6월1일

국내 성지순례 안동·마산 6월27일~29일

한국 수도원 순례 10월9일~12일

홍성남 신부 아키타 9월2일~6일

성지순례 이브스키 10월28일~11월1일

가정선교회 6월 피정·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토요피정과 6월1일(토) 12시30분~17시
성모신심 첫토 미사 하성용 신부, 김경희 수녀

성가정 영성 피정 6월5일(수) 12시30분~17시
서정희 신부, 이요셉 소장

예수성심성찰 치유 6월15일(토) 10시~17시30분
회복을 위한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찬양 1일 대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5월20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때, 곳: 4박5일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화), 예수회센터

문의(접수): 02)3276-7794(ciskorprov@gmail.com)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마진우 신부 / 울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5월24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버스 500·504·643·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 문의: 02)867-79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우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31일(금)~6월3일(일)·7월19일(금)~22일(월)·8월16일(금)~19일(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6월21일~23일·7월1일~3일(추자도)·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9월21일~23일·10월1일~3일,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일~13일·8월24일~26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성물·목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할인·수료이벤트

내용: 복수과목 신청시 할인·수료시 2만5천 포인트 지급(단과 제외) /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문 루치아 수녀(노를담 수녀회)

주제: 구체적 실현 '생태와 희망 2'

때, 곳: 6월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작은형제회 청년성서모임 6월 특강

주제: 철학으로 성경읽기-마르코복음의 실존적 길

강사: 박성호 신부 OFM / 인스타그램: feebible

대상: 만 49세 이하 청년 누구나 / 문의: 010-9967-1590

때, 곳: 6월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서강대학교 '영성의 책꽂이'

주제: 단테 신곡과 신앙에

때, 곳: 5월20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김산촌 신부(예수회)

회비 없음 / 문의: 02)705-4711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프로그램

1) 신부님과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

내용: 인문독서(6주) / 자격증 수여

때: 5월23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성당 교육관 304호

회비: 10만원 / 문의: 010-8477-6688

2) 제12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때: 7월13일~21일(8박9일 제주항공)

곳: 필리핀 바그나 / 회비: 항공료(본인 부담)

5월30일까지 접수 / 문의: 02)335-3332 사무국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	------------------------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	-----------------------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곤밸리 탐방)
----	---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틀림, 서유럽투어)
----	---------------------------------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27일(월)~6월7일(금)-전형일 6월22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	--

모집

베이프스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3709-7956

모집인원: 각 파트 1명 / 대상: 성인 남성(시니어 환영)

재속예수성심전교회 회원 모집

대상: 예수성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분(만 55세 이하) / 피정: 매일 셋째주(일) 10시

문의: 010-2312-2396 최 이사야 수녀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 / 담당: 최효영 신부)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함께 할(가을) 3·40대 새단원(각파트 약간명)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 010-8000-3194 (문자) 충무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0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6월15일(토)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6월13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0일(월) / 문의: 010-9836-8998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5월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20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미사
집전: 구요비 주교(주례), 염수정 추기경 외 서울대교구 사제단 /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때, 곳: 5월29일(수) 오전 10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소록도 성지순례 / 회비: 6만5천원(점심+저녁)
때, 곳: 5월20일(월) 오전 7시 출발, 가톨릭회관 1층 정문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피는 기도모임 / 입금 후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차 이상 / 문의: 010-5751-3978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미래사목연구소 제10차 학술 발표회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때, 곳: 6월1일(토) 13시30분, 인천교구청 이안나홀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글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제27주년 라파엘 창립기념 콘서트
때, 곳: 5월26일(일) 14시~17시, 명동성당(중구 명동길 74 성모동산 성모상 앞) /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연: 라파엘 홍보대사 하림 외 다수
사전등록: <http://bit.ly/4aaUZfU>
문의: 02)744-7595(raphaelnannum@naver.com)
주최: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영성심리 독서모임	6월13일 매주(목) 10시~13시(7주)
정신역동과 소통훈련 (집단상담 2박3일)	6월28일(금) 10시~30일(일) 17시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사별, 이별, 우울, 영성상담
심리학 박사·신부 직접 상담 / 문의: 010-9146-7654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5월28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Zoom 특강
주제: 자녀와 부모의 신앙단계 알기와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 5월19일(일)까지 접수
때: 5월24일(금) 19시30분~21시30분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직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홈페이지(catholic.ac.kr) 모집공고-성신광장-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참조 / 문의: 02)740-9707, 970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마음자리(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원 모집 / 문의: 02)2691-4365
분야: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마음자리 홈페이지(www.maumjari.com) 채용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momjari@naver.com)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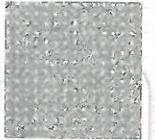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경찰사목 선교사 대상 교육·행사 준비, 진행, 사무행정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대상: 견진 받은 교우, 사무행정 업무 가능자
기간: 7월1일~2025년 9월30일(15개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7일(금)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1, 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5월26일(일) 16시 / 수시	신내동성당 수녀원	010-8446-3217
미래내 천주 성심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6월15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5월26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월25일(토)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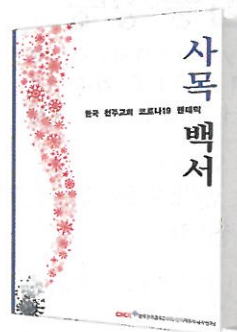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365 성경통독
2단 노트

성바로말수도회
바로로말 | 228쪽 | 1만6천원
문의: 02)944-0944

365성경통독 노트가 판형을 키우고 2단 구성으로 출시되었다. 이 책은 날마다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말씀을 그날의 마음 날싸와 함께 담으며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노트이다. 제시된 통독표에 따라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외닿는 구절을 적으면서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신간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312쪽 | 3만원
문의: 02)460-7582, 3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와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한국 천주교회 역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한국 천주교회의 현재와 앞으로의 사목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백서 형태로 작성되었다.



음악 피정
청년문화공간JU
6월 음악 피정

일시: 6월 1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338-7830

청년문화공간JU에서는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음악 피정을 진행한다. 6월은 '주님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은혜의 뜰 찬양사도팀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6월 1일(토) 오후 2시~4시,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에서 진행된다.



음악회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음악 미사와 작은 음악회

때: 5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곳: 목동성당 대성전 / 전석 무료
문의: 010-9464-0680

40년 전통의 무반주 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음악 미사와 작은 음악회가 5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목동성당 대성전에서 진행된다. 신기호 신부님의 지휘로, 이탈리아 추기경 도메니코 바르톨루치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의 천사미사곡과 '오, 거룩한 잔치여'(O Sacrum convivium) 외 무반주 다성음악곡들이 연주된다.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검색하세요.



가톨릭튜브는 가톨릭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합니다. 또한 서울주보에 담지 못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전달하는 서울주보 연계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표지의 성화를 통해 주일 복음을 묵상하는 <바로로 신부의 성화 이야기>, 재미있는 영화를 교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비하인드 영화칼럼>, 교회 내 다양한 장소를 대신 방문해 소개하는 <대신 가드립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1) 바로로 신부의 성화 이야기



(코너2) 비하인드 영화칼럼



(코너3) 대신 가드립니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뽀뽀하자!”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모집기간 : 5월 19일(주일)~6월 23일(주일)
추가모집 : 6월 23일(주일)~7월 21일(주일)
대상 : 예비신자 · 외딴교우 · 첫영성체준비자
교리시간 : 주일반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오후 7시~8시 / 304호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명동성당
접수및문의 : 바오로비안네 교감 (010-7207-9295)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5월 21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청년 떼제기도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4시~오후 6시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소성전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5월 26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병자영성체 : 5월 31일(금) 오전 10시 출발

◎ 성모신심미사 : 6월 1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문의 : 베로니카 분과장 (010-3603-4280)
* 축복식은 매 교중미사마다 가능합니다.

◎ 남성울뜨레야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일시 : 5월 28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 (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개강 : 6월 1일(토)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9일(주일) 오늘까지
신규접수 - 5월 20일(월)~24일(토)
접수및문의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아네스 (010-4538-5665)

◎ 빈첸시오회 회원 모집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빈첸시오와 함께하실 회원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 스테파노 회장 (010-2430-0565)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301호
문의 : 실비아 단장 (010-6588-2236)

◎ 반디 주일학교 학생, 교사 모집

혼자서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반디 친구들에게 반디 주일학교는 주일마다 찾아오는 놀이터입니다. 반디 주일학교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학생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 소성전
문의 : 바오로비안네 교감 (010-7207-929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5.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3	714 (35.7%)	669 (33.4%)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최석주 다투 상가삼십만원

◎ 감사헌금 (5월 6일~12일)

익명이십일만원 정수진칠만원
곽선모오천원 송민석삼십만원
익명일만원 유정자오십만원
뉴맨공동체삼십만원 익명일십만원
미라클합창단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승천 대축일)

교무금8,352,000원
주일헌금5,441,100원
홍보주일 2차헌금1,578,000원

입당	145	봉헌	212,253,220	성체	174,187,157	파견	144
----	-----	----	-------------	----	-------------	----	-----



주님 당신숨을 보내서 - 어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 하소서